

## 제5절 오세아니아권

### 1. 오세아니아권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 및 전망

오세아니아권 애니메이션 시장은 그동안 아시아태평양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시장으로 그로 인해 시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이다. 오세아니아권에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포함되며, 2010년 기준으로 10억 5,1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향후 5년간 연평균 6.1%의 성장률로 2015년에는 14억 1,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아니아권 시장 역시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표 III-30> 오세아니아권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극장용	73	81	83	90	96	103	111	121	128	136	143	6.9%	
방송용	465	491	550	580	588	626	664	704	747	792	813	5.4%	
홈비디오	합계	224	223	256	289	300	318	337	358	380	404	429	6.2%
	판매	143	141	171	195	197	209	222	238	255	275	294	7.1%
	대여	80	83	85	94	103	109	115	120	125	128	135	4.3%
온라인	-	-	-	-	-	1	2	6	10	15	18	81.8%	
모바일	-	-	2	2	3	4	5	6	8	9	11	23.4%	
합계	762	795	890	961	987	1,051	1,120	1,194	1,272	1,356	1,414	6.1%	
전년대비 성장률		4.3%	12.0%	8.0%	2.7%	6.4%	6.6%	6.7%	6.5%	6.6%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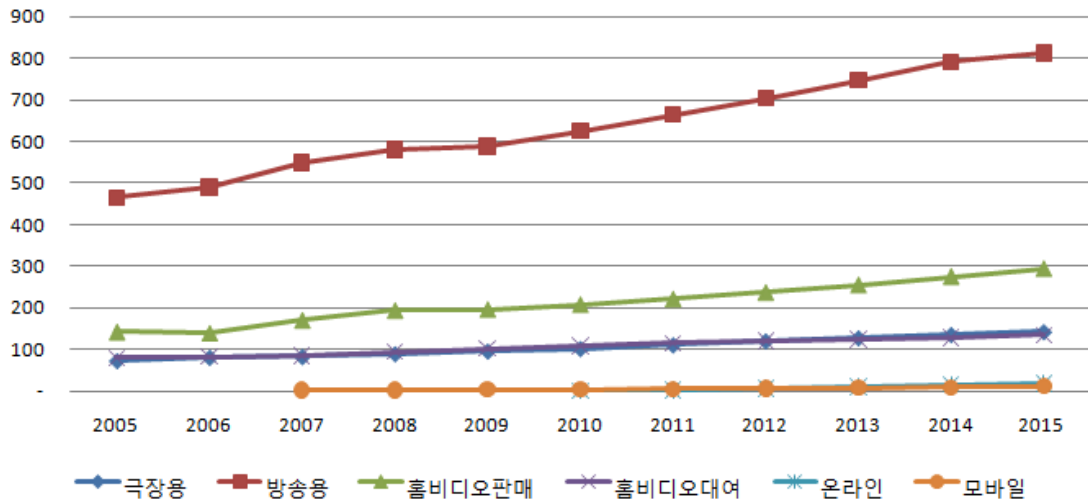
자료원: MPAA(2010); PWC(2010); Digital Vector(2009); The Numbers; Boxoffice Mojo; FutureSource(2010); 삼정KPMG 재구성

부문별 시장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방송용 애니메이션 시장이 20.3%로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극장용 시장이 9.8%, 홈비디오 판매시장이 9.1%, 대여시장이 6.3%, 온라인 시장이 81.8%로 나타나고 있다. 오세아니아권의 경우는 다른 권역 및 국가들과 달리 홈비디오 시장의 꾸준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시장형성이 미흡했던 온라인 시장은 2010년 이후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오세아니아권 시장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권역으로 영화의 후반작업이나 특수효과 스튜디오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부차원의 촬영지원 혜택을 통해 해외 작품을 유치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III-46] 오세아니아권 애니메이션 부문별 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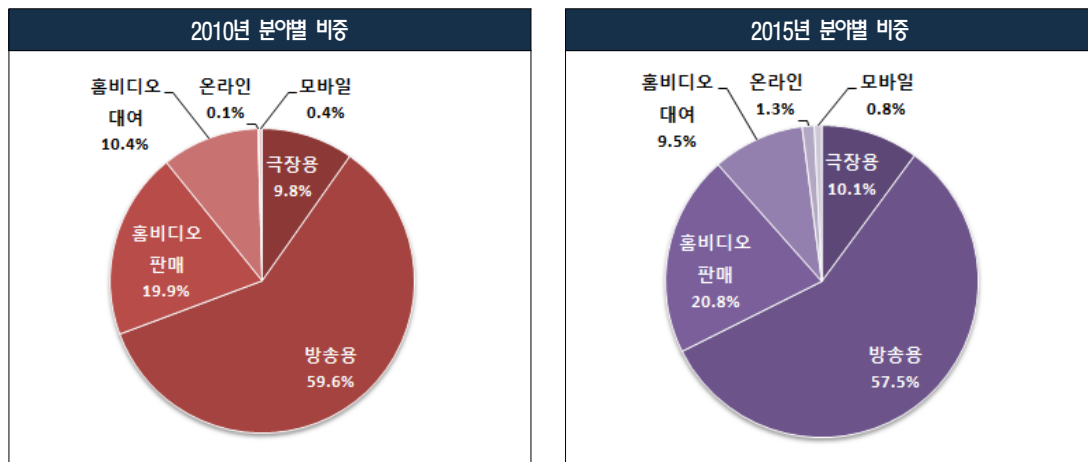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MPAA(2010); PWC(2010); Digital Vector(2009); The Numbers; Boxoffice Mojo; FutureSource(2010); 삼정KPMG 재구성

2010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방송용 애니메이션 시장은 2015년 59.6% → 57.5% 로, 홈비디오 대여 시장은 10.4% → 9.5%로 감소가 예상되며, 반면 홈비디오 판매 시장은 19.9% → 20.8% 로, 극장용 애니메이션 시장은 9.8% → 10.1%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은 각각 1.3% 와 0.8%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47] 2010년과 2015년 오세아니아권 애니메이션 시장 분야별 비중



자료원: MPAA(2010); PWC(2010); Digital Vector(2009); The Numbers; Boxoffice Mojo; FutureSource(2010); 삼정KPMG 재구성

### □ 호주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 및 전망

호주 애니메이션 시장은 2005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현재 8억 9,7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극장용이 9,200만 달러, 방송용이 5억 2,400만 달러, 홈비디오 시장이

2억 7,700만 달러로 연평균 7.3%의 성장률로 성장해 2015년에는 12억 7,3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III-31> 호주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 및 전망

(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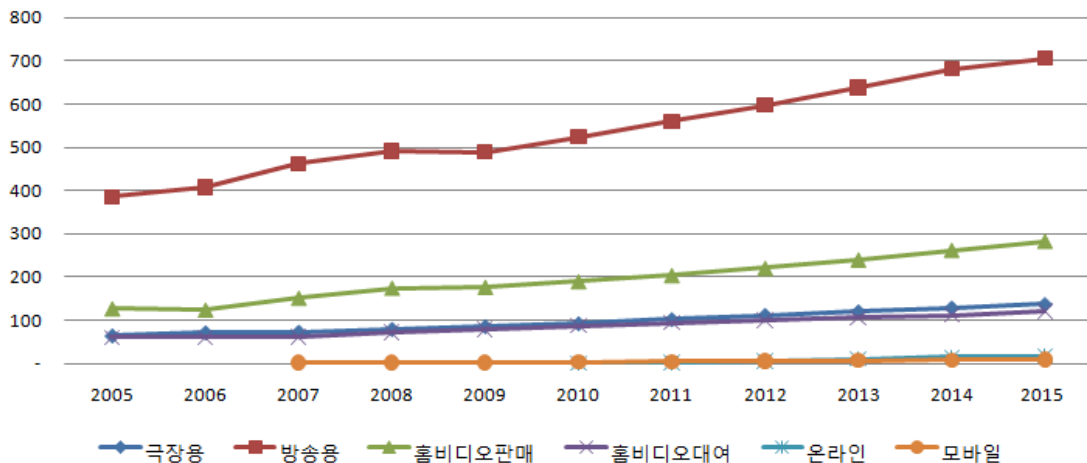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극장용	64	71	73	79	86	92	102	112	120	129	137	8.2%	
방송용	386	408	462	491	489	524	560	598	638	681	706	6.1%	
홈비디오	합계	188	185	214	246	257	277	298	321	346	374	404	7.9%
	판매	128	125	152	175	177	190	204	221	240	262	283	8.3%
	대여	60	60	62	71	79	87	94	100	106	112	121	6.8%
온라인	-	-	-	-	-	1	2	6	10	15	17	80.8%	
모바일	-	-	2	2	3	3	4	5	7	8	10	23.5%	
합계	637	663	750	818	834	897	966	1,042	1,121	1,207	1,273	7.3%	
전년대비 성장률		4.1%	13.1%	9.1%	1.9%	7.6%	7.7%	7.8%	7.6%	7.6%	5.5%		

자료원: MPAA(2010); PWC(2010); Digital Vector(2009); The Numbers; Boxoffice Mojo; FutureSource(2010); 삼정KPMG 재구성

방송용 애니메이션 시장의 규모가 연평균 6.1%의 증가세로 성장이 예상되며, 극장용 애니메이션 시장은 8.2%, 홈비디오 시장은 7.9%의 성장률로 시장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시장의 경우 80.8%라는 높은 연평균 성장률이 전망된다.

[그림 III-48] 호주 애니메이션 부문별 시장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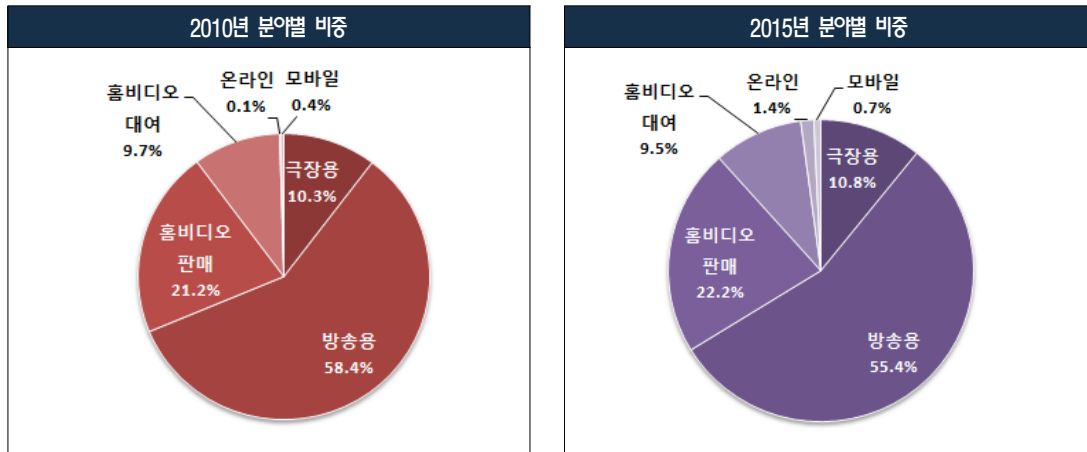


자료원: MPAA(2010); PWC(2010); Digital Vector(2009); The Numbers; Boxoffice Mojo; FutureSource(2010); 삼정KPMG 재구성

2010년 호주의 방송용 애니메이션 시장규모는 5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홈비디오 판매가 21.2%, 극장용이 10.3%, 홈비디오 대여가 9.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방송용이 58.4% → 55.4%로, 홈비디오 판매가 21.2% → 22.2%로, 극장용이 10.3% → 10.8%로, 홈비디오

대여가 9.7% → 9.5%로 나타나, 방송용 애니메이션 시장을 제외한 대부분 시장의 소폭의 증감을 보이며 일정한 시장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시장은 0.1% → 1.4%, 모바일 시장은 0.4% → 0.7%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49] 2010년과 2015년 호주 애니메이션 시장 분야별 비중



자료원: MPAA(2010); PWC(2010); Digital Vector(2009); The Numbers; Boxoffice Mojo; FutureSource(2010); 삼정KPMG 재구성

## 2. 오세아니아권 애니메이션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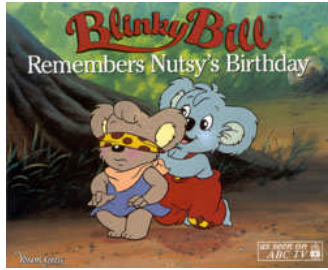
호주의 애니메이션은 국제적인 영화제를 통해 미국·일본과 함께 세계 애니메이션사의 중심에 위치한다. 2009년 <매리와 맥스>라는 작품은 베를린·안시·아시아태평양 스크린 등 국제적인 영화제에서 최고작품상을 수상하며, 다시금 호주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알렸다. 1976년 브루스 페티(Bruce Petty)의 <여가 Leisure>와 2003년 아담 엘리엇(Adam Elliot)의 <하비 크럼펫: Harvie Krumpet>이 아카데미 최우수 단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는 등 아카데미(Academy Awards)를 비롯한 해외 우수 영화제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sup>1)</sup>

현재 호주는 3D를 비롯한 VFX 등 CG 애니메이션 제작과 포스트 프로덕션 작업이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TV 방영을 목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다. 호주는 과거 월트디즈니 대표적인 작품 제작에 참여해오면서 2D 위주의 작품을 제작했으나 월트 디즈니(Walt Disney)사의 호주 국내의 현지법인 제작회사가 폐업한 이후 2D에서 3D로 제작방식을 변경하고, 최근에는 호주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해 영화 및 애니메이션 등의 포스트 프로덕션 작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지난해 동안 호주 국내 제작영화 38편, 텔레비전 드라마 외 영상물 44편 등 총 6억 8,800만 달러 규모로 파악돼 전년도 대비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해외 필름의 호주 내 제작 사례는 현격히 줄어들어 수입규모도 1억 달러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 Naver 영화정보, 위키피디아

[그림 III-50] 호주 애니메이션의 대표작들



블링키 빌(Blinky Bil)



해피피트(3D)

주. 코알라가 주인공인 호주의 대표적인 2D 애니메이션 작품인 <블링키 빌(Blinky Bil)>과 3D 애니메이션 작품인 <해피피트>임  
 자료원: Google

또한 지난 회계연도 동안 호주에서 촬영·제작된 외국 영화는 단 6편으로 모두 미국영화로 알려졌으며, 그 밖에 단 7 편의 영화가 호주에서 포스트 프로덕션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실제로 세계적 포스트 프로덕션 강국으로 알려진 호주의 지난 2007~2008 회계연도 동안의 포스트 프로덕션 수입은 1억 1,800만 달러였으나, 지난 회계연도에는 단 2,1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연방정부 차원의 국내 드라마 제작지원비용은 지난 회계연도 동안 4,3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영화제작비 지원은 3,500만 달러로 파악됐다.

호주에서의 후반작업은 미국과 비교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풍부한 디지털 제작 인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작업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으나, 최근 호주에서 진행된 작품수가 현격히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호주 정부는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을 고민중이다.2)



자료원: 위키피디아

□ 사례분석 : 메리와 맥스(Mary and Max)

메리와 맥스는 아시아 태평양 스크린 어워드(2009),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2009), 베를린국제영화제(2009)에서 최우수애니메이션상, 그랑프리, 청년영화상을 수상한 호주 애니메이션이다. 클레이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일반적인 클레이 작품이 유머있고 아기자기한 밝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어두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2003년 단편 애니메이션 <하비 크럼펫>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며, 호주 애니메이션을 세상에 알린 애덤엘리엇 감독의 새로운 작품으로 다소 진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